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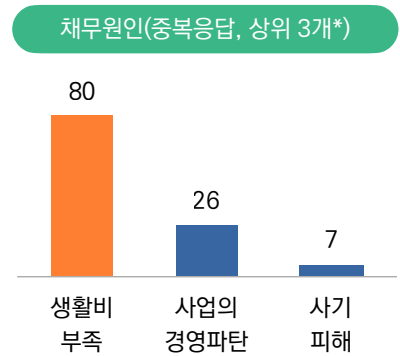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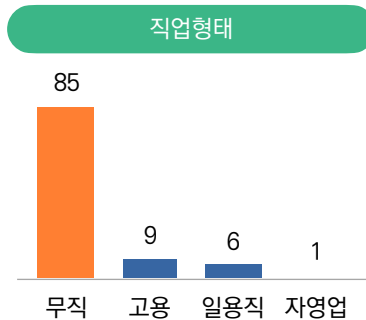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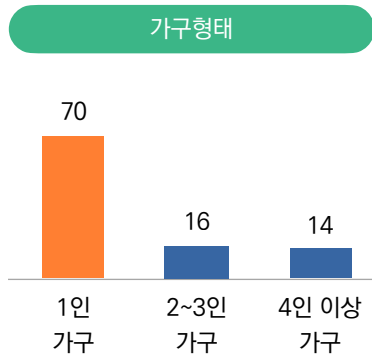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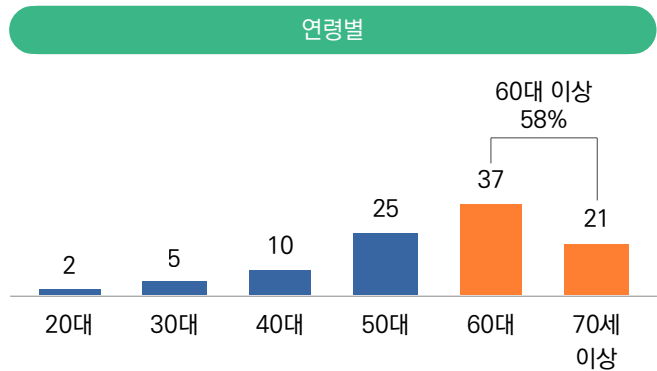


[개인 파산 현황]

서울 개인 파산 신청자, 1인 가구·무직·60대 이상 높아!

- ‘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’ 발표 자료(서울시복지재단)를 통해 서울의 개인 파산 실태를 살펴본다.
- 개인 파산 신청자를 살펴보면, 연령별로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(58%)을 차지하고 있고, 1인 가구 비중이 70%로 높은 편이었으며, 직업은 대부분 무직(85%) 상태였다.
- 1인 평균 총채무액은 2억 8,7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, 채무 발생 원인은 ‘생활비 부족’이 10명 중 8명으로 가장 높았고, 이어 사업의 경영파탄(26%), 사기피해(7%)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개인 파산 신청자 현황 (%)



※출처 :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보도자료, 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 발표, 2026.03.10.

*기타는 제외